

수월관음도 180x200cm 스테인드글라스.

스테인드글라스와 불화의 '이색 만남'

광주 무각사, 임종로 작가 스테인드글라스作 6점

한국 불교미술 사상 최초로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고려불화가 대중에 공개된다.

광주 무각사는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든 고려불화 등 6점을 선보이는 '중창불사 특별전'을 2월 15일까지 로터스갤러리서 진행한다. 작품들은 2014년 중창불사를 시작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완공될 지장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스테인드글라스'는 금속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표면에 안료를 구워 붙인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이다. 7세기경 중동지방서 시작돼 11세기 서구에 전해졌고, 12세기 후 교회당 건축에서 본격 발달하기 시작했다.

무각사에 설치될 스테인드글라스는 수월관음도 · 지장보살도 · 지장시왕도 · 아미타팔대보살도 · 현대단청 · 만다라문양 등 고려불화로, 특히 수월관음도는 자연채광에 비쳤을 때 살아나는 생동감과 우아함이 더욱 매력적이다.

불교 미술사상 선구적 시도
동서양 · 과거현대 '이색'
수월관음도 등 고려불화

불교미술에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불교미술 사상 선구적 시도란 점에서 주목된다. 무각사 측은 "중창불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자연채광을 활용하면서도 불교적인 장엄미와 예술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스테인드글라스에 주목, 처음으로 스테인드글라스 불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된 6점은 모두 임종로 작가의 작품이다. 임종로 작가는 대학시절 스테인드글라스를 배우기 위해 르네상스 탄생지인 피렌체서 유학했다. 그는 16년 간 이탈리아 공방작가로 활동하며 스테인드글라스의 제작 기술을 익혔다.

임 작가는 이번 무각사 전시를 위해 2016년 초 작업에 착수, 약 10개월에 걸쳐 6점을 완성했다. 불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새 시도인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썼다. 임 작가는 "불교미술에 표현된 장신구들이 워낙 섬세하고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특히 현존하는 고려불화 160여점의 대부분이 외국에 있어 원본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대한 전통을 재현하는 한편, (보살상의)골격에 변화를 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반 평면미술과 달리, 빛과 만났을 때 극한의 화려함을 내뿜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매력을 고려해 원래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

또한 고려불화 스테인드글라스가 설치될 지장전이 반지하인 것도 작업 과정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임 작가는 "지장전 내부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공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자연광이 드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로 작가는 2001년 피사 로솔리 미술학교서 스테인드글라스 개인전, 201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성당 모자이크 전시 설치, 2013년 아우스틴 대성당 8개 창문 스테인드글라스 전시 설치 등 해왔다. 현재 이탈리아 미켈레멜리니 스튜디오 수석작가를 맡고 있으며, 미술공방 'Studio AuraArte'를 운영하고 있다. (062)383-0108 박아름 기자

판화로 만나는 세계의 닭

고판화박물관, 1월 22일~3월 31일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전령사' 특별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아시아 · 유럽 등 세계의 닭 관련 예술 작품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2일~3월 31일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전령사-세계의 닭 판화 특별전'을 진행한다. 2017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서는 닭 관련 한국의 세화, 목판화, 민화, 석판화를 비롯해 피카소와 샤갈의 석판화 작품, 헝가리의 석판화 등 70여점이 전시된다.

닭은 예로부터 귀신을 몰아내고 축귀와 액을 막는 수호초복의 기능이 있다고 전해져왔다. 이에 민간에서는 정월초하루 호랑이와 닭 그림으로 액을 물리치고, 새벽에 우는 닭 울음소리를 듣거나 상원일 풍속에 닭의 새벽울음이 10번이 넘으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특히 〈천수경〉에서 닭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다리보살의 화신으로 표현돼 불교에서도 희망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수탉 석판화. 피카소 作.

한선학 관장은 전시회에 앞서 1월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서 "닭은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전령사다. 이러한 닭의 불굴의 정신으로 국가의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해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닭 판화 체험 템플스테이'도 함께 진행된다. (033)761-7885 박아름 기자

분당 대광사, 이순자 작가 고려금니법화경展

50여점 전시… 미륵불 복장 봉안 예정

대한민국 불교문화사경부문 명인 혜화 이순자 작가의 고려금니법화경 전시회가 분당 대광사서 열린다.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서 이순자 작가는 순도 99.9% 금으로 작업한 금니법화경과 함께 변상도, 호법신상도 등 5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금니법화경은 이 작가가 1,000일 동안 간절한 염원을 담아 완성한 작품으로, 약 7만자의 100m에 달하는 작품이다. 대광사는 금니법화경을 전시 후 미륵보전 미륵불 복장에 봉안할 예정이다.

이순자 작가는 1월 14일 열린 개막전서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을 대광사 미륵부처님 복장에 봉안하게 돼 작가로서 영광"이라며 "모든 관람객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순자 작가는 한국예술문화명인(제16-20-01-29호)으로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오사카 총영사관 한국문화원 초대전,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상해 총영사관 한국문화원 초대전, 한국미술관 등 국내외 개인초대전을 20여회 연 바 있다. 동화사 황금금강경 및 대견사 황금법화경, 고왕암 황금아미타경 등도 점안했다. 박아름 기자

불일미술관, 무료대관 신진작가 모집공고

2017 하반기 전시 가능 작가 대상
무료대관 지원… 3월 10일까지 접수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전시 무료대관 혜택을 제공할 신진작가 공모를 실시한다.

모집대상은 평면 · 입체 · 복합 · 미디어 · 불교미술 등 개인 및 그룹으로, 2017년 하반기(5~12월) 내 전시 가능한 작가에 한한다. 선정대상자에게는 전시장 뿐 아니라 엽서 크기의 인쇄물 및 현수막, 홍보를 지원한다.

접수마감은 3월 10일까지로, 희망자는 미술전시 공모사이트 네오룩(www.neolook.com) 또는 아트허브(www.arthub.co.kr)서 △대관신청서 △전시계획서, 프로필 및 경력, 포트폴리오(자유형식, PDF파일) 등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gallerybulil@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불일미술관 측은 "지난해에 이어 신진작가들을 위한 전시무료대관을 기획했다. 개관 21주년을 맞은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지난해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 활발한 전시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일반미술은 물론 불교미술의 신진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일미술관은 1월 29일~2월 7일 제1관서 화림 작가의 1번째 개인전 '화림, 불교를 디자인하다展'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서 '화림'이란 불교 상품 브랜드도 함께 소개된다. 쿠션 · 베개 · 108방석 · 앞치마 · 염주 · 다표 등 종교 생활용품으로, 화림 작가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박아름 기자

謹賀新年

Universal Buddha Land (U.B.L.)

사)국제불교문화진흥협회

회 장 이종목
종 정 옥 담
총 무 반야시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 35길 32 | 전화 053)614-7644
H.P. 010-3133-1776, 010-3543-2710 Homepage : WWW.ubl.kr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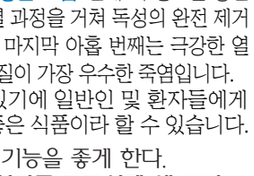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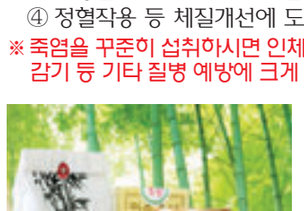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